

제2회 동서 교류제, 소통의 장이 열린다

응답하라 2007·2008 추억을 되새겨



▶동아리 팔몰웍스 문방구 부스 운영 학생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지난 9월 12일 우리 대학 운동장에서 제2회 동서교류제가 열렸다. 지난 3월 14일 열렸던 제1회 동서 교류제에 이어 제2회 동서교류제는 더 발전된 모습이었다. 모두가 총학생회는 개강 전인 8월 8일부터 29일까지 플리마켓 셀러를 모집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고 행사 중 1시부터 3시까지 무대공연을 했다. 동아리 미드 믹스, 블랙 등 재학생들의 다재다능한 끼가 온 운동장에 발산됐다. '모두가' 총학생회는 "우리의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이 담긴 2007·2008년을 기억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토대로 하여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딱지치기, 풍기놀이, 판치기, 옛날 과자 만들기 등 다양한 게임들로 학부별 부스를 마련하여 준비했다. 또한 매년 학교 내에서만 하던 길거리 홍보를 이번에는 교외에서 더욱 신나고 즐겁게 즐기

기 위해 각 동아리별 부스도 준비했다. 학생 자치 기구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16개의 학부 부스, 우측에는 28개의 동아리 부스가 설치됐다. 학부별 콘텐츠, 동아리 홍보 및 공연, 플리마켓, 포토존, 스탬프 투어, 푸드트럭이 운동장과 분위기를 가득 채웠다. 교류제 행사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제1회 동서교류제에 이어 이번 행사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서로서로가 교류할 기회가 많이 없는 각각의 다른 학부들과 동아리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교류를 했다. 자신이 속한 학부와 동아리가 아닌 이상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동서교류제에 각자의 부스에 특성을 담아내어 재학생들에게 더 넓은 교류의 장을 만들어냈다. 권민철 현 총학생회 회장은 "개강과 함께 학우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은 일기 학우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것들을 꼭 지키는 모두가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직접 찍은 사진으로 엽서를 제작해 판매했던 방송영상전공 구민희·전자공학전공 김현지 학생은 "우리가 여행을 다니며 찍은 사진들을 엽서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매년 미루기만 했다. 마침 동서교류제를 통해 기회가 생겨서 기분도 좋고 성취감도 생겨 뿌듯했다.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이 사람들에게 가치 있어도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방송영상전공 편주혜 학생은 "모든 학부와 교내 학부와 동아리가 아닌 이상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동서 교류제를 통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 너무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카롱을 판매했던 광고 PR 전공 표영지 학생은 "아버지가

베이커리를 운영하기도 하고, 마카롱이나 머랭 쿠키를 만들기엔 한창 빠져있던 요즘 동서교류제에서 한 플리마켓은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 사실 많이 팔리지 않을 것 같아서 만드는 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주고 맛있다고 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다. 이로 인해 아버지와 함께 좀 더 전문적으로 마카롱을 만드는 것에 연구를 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하시는 가게에도 팔기 시작하여 수익을 얻었고 여려모로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행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학교 학생들이 어우러진 행사를 해서 더 참여도가 높았고 재미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제 2회 동서 교류제는 재학생들에게 그저 2007년과 2008년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큰 비전을 얻게 준 행사가 됐다.

지은서 기자
eunseo9830@gmail.com

아시아 중심의 영화영상대학

임권택 영화영상예술대학의 결실



▶임권택 영화영상예술대학

우리 대학의 섹터 캠퍼스에 위치한 임권택 영화영상예술대학은 부산국제영화제가 펼쳐지는 일대에 위치한다. 1200여 석 규모의 소환뮤지컬시어터에서 뮤지컬과 연기와 학생들은 직접 공연을 올린다. 영화와 학생들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은 물론 1년 내내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을 도보가 가능한 거리에서 즐길 수 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주요 정부 기관 또한 가까이 위치한다. 하지만 이들은 동서대학교 임권택 영화영상예술대학이 가진 지리적 이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동서대학교 임권택 영화영상예술대학은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아시아영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은 산학협력 형태로 각 스태프 부문에서 참여할 기회를 얻고 있다. 학생 때부터 아시아 영화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2017년 영화 잡지 <버라이어티>가 동서대학교 임권택 영화영상예술대학을 전 세계 대학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영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20개 대학 중 하나로 거론하며 언급하였다. 여기에 2017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교육부가 주관하는 '잘 가르치는 대학(에이플러스 사업)'에 신규 선정돼 4년(2년+2년)간 80억 원 내외를 지원받고,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씨케이-원)에서 동남권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지역전략 사업장에 선정돼

5년간 25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등 지속적인 정책 사업의 대상이 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이곳 교육 환경을 자세히 보면 임권택 영화영상예술대학은 보통 한 과에 교수가 4명 정도이지만 이곳은 8명이다. 이론과 실습에 대한 조화를 고려해서 커리큘럼도 새로 바꾸었다. 학생들이 작품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예를 들어 1학년은 작품을 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는 기초 소양과 이론 중심 수업을 받는다. 영화를 보는 안목, 영화와 현실의 관계, 궁극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이유에 관한 철학 등을 훈련시키는 데 주력한다.

영화제작 지원 규모는 한 해에 10작품 이상의 졸업작품이 나오도록 전적으로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2, 3학년 작품도 일부는 지원한다. 아주 혁신적인 방식이다. 또한 영화제작에 있어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사운드, 카메라, 조명 등 장비부터 편집실, 스튜디오 등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학부·대학원 졸업생이 모두 모여서 독립영화를 만들며, 국내외 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사진출처 - 씨케이-원
지은서 기자
eunseo9830@gmail.com

동서대 작업치료학과 세계작업치료사연맹

부산광역시 최초, 교육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작업치료학과 학생들

동서대학교 보건의료계열인 작업치료학과가 부산광역시 최초로 2018년 8월부터 2025년까지 세계작업치료사연맹 교육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세계작업치료사연맹은 1952년에 설립된 세계보건기구 가입기구로 세계 작업치료사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단체이다. 한 국은 세계작업치료사연맹에 49번째 가입 회원국으로 우수한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 작업치료 교육과정들을 평가하면서

인증하고 있다. 교육인증은 국내 작업치료 교육과정의 제반지원 시스템을 평가하여 국내 작업치료에 대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작업치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세부적 평가는 세계작업치료사연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교과과정의 ▲체계성 ▲교과 내용 ▲임상실습교육 ▲교육 시설 ▲교수진 평가 등 5개 영역, 30개 항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

랑스 등 7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산하 기구로 작업치료의 발전을 위해 각국의 작업치료협회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작업치료사연맹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교 졸업자는 '회원국 간 협력 인정 및 면허 취득 기회'가 동등하게 인정된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국제면허증 취득을 통해 국외 의료기관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2011년에 개설된 동서대학교 작업치료학

과는 2015년(1회 졸업생)부터 2018년(4회 졸업생)까지 4년 연속으로 100%의 전국 1위 국가고시 합격률을 달성하며 높은 평가를 받는 학과이다. 또한 작업치료학과는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등 20여 개 기관들과 실습 협약을 맺고, 국내 최고 수준의 임상실습교육을 학생 1인당 약 1000시간 이상 실습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 시내 최초의 4년제인 동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전문 작업치료사의 양성, 앞선 기술로 재활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인력의 양성, 기초의학 및 임상실습교육의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세계화에 따른 전공영어교육 강화를 통한 해외취업 및 해외 자매대학의 연수를 통한 미래지향적 인력 양성을 대 목표라고 있다. 졸업생들은 국가고시를 통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졸업 후에는 주로 병원, 복지관, 재활원, 장애인 직업훈련학교, 특수학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건직의 공무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부산광역시 최초로 세계작업치료사연맹 교육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동서대학교 보건의료계열 작업치료학과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성장과 역량을 기대해본다. ▷사진출처 - 동서대학교 공식 블로그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한 중 뉴미디어 문화 창의 산업단지

동서대 외 국외 2개 대학 손 맞잡아



▶한-중 호북성 경제협력 설명회

우리 대학과 중국 무한 홍산구, 중남재경법대학이 협력하여 중국 홍산구에 '한 중 뉴미디어 문화창의 산업 단지' 건설을 합의했다. 지난 8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 호북성 경제협력 설명회'에서 동서대 조중성 부총장과 중국 측 홍산구 양자와 당서기, 중남재경법대 야오리 부총장이 참석하여 3자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체결에 앞서 동서대 장재국 총장과 홍산구 양자와 당서기는 별도의 회의를 진행했다. 중국 무한 홍산구에 설립되는 '문화창의의 산업 단지'에는 국제 애니메이션 연구센터, 교수 연구센터, 애니메이션 연구센터, 비선형 편집과 복제 센터 등을 포함한 국제애니메이션 문화 테마 산업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 협정을 통해 우리대학과 중남재경법대학은 디지털콘텐츠

기술과 노하우 등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 대학은 2011년 아시아 최초로 중국 중남재경법대학에 한 중 합작대학을 설립해 애니메이션과 게임,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300명의 현지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3년 동안은 중국에서 배우고 1년을 동서대 본교에서 강의와 학위를 받는다. 또 매년 120명의 동서대 학생들도 중국-스튜디오 어브로드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학기 동안 중국 제2패션에서 유학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서대와 중남재경법대학 간의 돈독한 신뢰관계에 의해 이번 사업의 한 축을 맡게 됐다. ▷사진출처 - 동서대학교 공식 블로그 지은서 기자 eunseo9830@gmail.com

동서대 팹랩 개소식

창의력과 실행력을 겸비한 창조자를 양성하다



▶팹랩 개소식의 기념촬영을 하는 정제국 총장과 교수진 및 전문가



▶팹랩 내부 시설에는 다양한 장비들이 있다.

지난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동서대학교 전자정보관 2층 현관에서 ‘동서대학교 팹랩 개소식’이 열렸다. 식순은 멘토단 접수, 유익신 목사의 기도, 센터장 시설 구두 소개, 기술 멘토 위촉장 수여 및 단체 사진촬영, 축사, 기념촬영, 티셔프 커팅, 시설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개소식에는 창의융합교육 공간인 팹랩의 구축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 교내외 인사 대상의 설명회를 가졌다.

팹랩은 교내 모든 동서대 학생들의 창의 교육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장소로서, 수업과 관련된 작품, 개인적인 아이디어, 단체 아이디어, 시민 혹은 기업과 연계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시장 창조, 기술 창업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팹랩은 인재 양성을 위한 넓은 지원 시스템을 확보했다. 교내 1,000여 개 분야와 300명의 교수진, 교외 70여 개 분야와 26명의 현장 전문가 멘토 인력이 있으며 기계가공 및 조립 장비, 전기 및 전자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동서대학교 전자정보관 2층 전체에 위치한 팹랩은 제어시스템 제작실과 기계 시스템 제작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00여 평의 면적을 가진다. 또한 팹랩은 ‘창의력과 실행력을 겸비한 시장 창조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다. 교육 및 메이커 운동 확산 지원 기능으로는 ▲동서대학교 학생 대상의 창의 교육 ▲지역사회와의 공유 ▲관내 초/중/고등학생과의 공유 ▲기업체와의 공유

▲지역 주민들의 평생 학습 지원 ▲학생, 시민, 기업의 창업 지원이 있다. 지원 대상은 동서대 재학생 외에도 초/중/고등학생, 시민, 기업 임직원, 공공기관이 있다. 동서대 학생들은 창의 교육 및 체험형 교육(교과, 비교과), 캡스톤 디자인, 각종 경진대회와 공모전, 개인 작품 제작, 창업 동아리, 학생 예비 창업자, 문제 중심 학습, 공학/디자인 봉사 장학생 등의 사업에 교수 및 현장 멘토의 자문과 더불어 공학/디자인 분야 봉사 장학생들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산업 분야에서 20년 이상 다양한 경험을 쌓아올린 전문가들이 자문하며 멘토로 적극 참여하고 있어 이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해졌다. 자문 가능 분야는 기계 기구 제작, 전자 회로, 지능 제어, 입체 프린팅, 설계 및 해석, 시뮬레이션, 로봇 부품 제작/시험, 시제품 제작 지원, 학제 간 협업 캡스톤 디자인 작품 제작 지원 등이 있다.

팹랩의 작동 흐름은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분석 ▲기구 설계 ▲회로 및 구동 소프트웨어 ▲부품 제작 ▲조립 및 검사 ▲제작 매뉴얼 작성/특허 출원 지원 ▲양산 및 사업화 도출된 아이디어가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지원 요청되면 팹랩의 기능이 작동되기 시작한다. 아이디어가 단순 구상 지면이라면, 해당 아이디어의 구현될 가능성과 제품으로의 가공 가능성, 특허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되며 기계 구조물 설계와 구조물을 작동시키는 센서 및 소프트웨어가 구현된다. 설계된 부품 및 소프트웨어는 가공과 조립과정을 거쳐서 예상하는 기능을 시행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작업도 검토될 것이다. 시제품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정부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는 넓은 실무 지식 및 경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교내 교수진들과 현장 전문가들의 자문 및 멘토링이 투입된다.

동서대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장, 이중익은 “본 학부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경험해 온 제품을 기반을 둔 교육과 2, 3학년 에 걸친 이론 교육을 3학년 2학기의 주제 연계 수업과 4학년 1학기의 스콧 1 수업을 통해 자신들만의 제품을 기획, 완성시키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이며 실무적인 공학교육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과 지원 인력이 구비되었다. 이 공간과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많은 학생 창업자들이 배출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창작 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초중고교생 대상의 창의교육도 실시 가능하며, 기술 창업을 위한 시민 및 기업체의 아이디어 등은 재학생들과 연계하여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부산 시민 전체가 창의적이 되고, 그중에서 많은 기술 창업자가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라고 말했다.

팹랩 센터장을 맡은 정현석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교수는 “초·중·고교생의 창의 교육을 비롯해 기술 창업을 위한 일반인·기업체의 아이디어는 재학생과 연계해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많은 기술 창업자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3년 전, 2015년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교육과정의 개편에서 시작되어, 매년 약 7천만 원의 설비 구매, 약 1억 원의 공간 리모델링에 투입됐다. 팹랩은 동서대 중심에 위치하며 기계와 전자제어 관련 제작, 시험 장비가 배치돼 있으며, 다양한 자문 교수와 기술 멘토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품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에는 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활용도 증대에 초점을 맞추며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부산 시민 전체에 팹랩을 자율 공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 방법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학생 및 교직원 등 누구나 자유롭게 팹랩을 구경할 수 있는 오픈 랩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자정보관 2층 동쪽 홀(제어시스템 제작실)과 서쪽 홀(기계 시스템 제작실)에서 진행됐다. 동서대 학생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부산 전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설계에 있어 보다 넓은 지원을 토대로 창의력과 실행력을 겸비한 새로운 창조자를 양성할 것을 기대해본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중국전매대학 뮤지컬 2+2협정 확대

라오상충 총장 일행, 동서대 방문해



▶장제국 총장, 라오상충 총장이 한국·중국 뮤지컬학과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9월 2일에서 3일, 동서대학교에 자매대학인 중국전매대학의 라오상충 총장 일행이 방문했다. 국제 교류협약 체결인 리양안, 교무부처장인 진수에타오를 포함한 일행 5명도 함께 동행했다. 라오상충 총장 일행은 9월 3일에는 동서대학교 선텐 캠퍼스를 찾아 1층에 위치한 소향뮤지컬시터 등 뮤지컬 관련 시설을 중점적으로 둘러봤다. 이날 중국전매대학 일행의 선텐 캠퍼스 방문과 관련하여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이 직접 그들을 안내했다.

중국전매대학은 중국 정부의 중점 지원을 받는 방송 매스컴 관련 엘리트 양성 명문 대학이다. 중국전매대학의 ‘전매’는 전자매체를 뜻하는 한자어이다. 방송, 통신 및 출판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54년에 베이징 광화원으로 설립됐으며, 2004년 9월 개교기념일 5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의 명칭인 중국전매대학으로 개칭한 대학이다. 중국전매대학은 북경의 동쪽 외곽에 위치하여 북경시 조양구 정북징의 북경 제2외국어 대학교와 나란히 위치해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대학이며 동시에 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이다. 대부분의 졸업생 8~90%가 중국 내의 미디어

어 계열에 취직하여 활동 중에 있다.

중국전매대학 측은 지난 9월 2일에서 3일 동안 동서대학교를 방문하면서 “동서대학교의 뮤지컬 교육 시설과 커리큘럼이 아주 우수하다. 교수들의 열정도 대단하다. 현재 진행 중인 뮤지컬 분야 ‘2+2 협정’을 더 확대해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뜻을 밝히며 뮤지컬 분야의 협정을 논의했다.

동서대학교는 중국전매대학과 지난 2017년 1월 6일에 뮤지컬 전공 ‘2+2 복수학위 협정’을 맺었고, 이 협정에 따라 중국 전매대학 학생들은 2018년 가을학기부터 동서대학교로 유학을 와서 2, 3학년 과정을 받게 된다. 4학년 때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졸업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2년은 중국의 본 대학교에서, 2년은 동서대학교에서 뮤지컬을 배울 수 있게 된다. 한편, 중국전매대학 학생 18명이 8월 말에 입학하여 이번 2학기부터 동서대학교 뮤지컬 학과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

자료출처 : 중국시시문화사전
(중국전매대학)
▷사진출처 - 동서대 대학뉴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2018 사상 수상레포트 한마당 개최

동서대 링크 플러스 사업단-5개 학부도 참여해



▶사상 수상레포트 한마당에서 래프팅을 하는 모습

지난 9월 15일부터 16일 총 이틀간 삼락 생태공원 수관교 일원에서 수상레포트 한마당이 열렸다. 동서대 링크 플러스 사업단과 사상구청, 사상구 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학부별 부스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레포트과학부에서는 다양한 수상레포트 운영 지원과 함께 스피닝 공연 및 스피드 민턴, 플라잉 디스크, 스포츠 스타킹 등 다양한 뉴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다양한 수상레포트들 사이에 보이는 각양각색의 체형 부스도 운영됐다. 작업치료학과는 치매 예방 관리 교육 및 치매 유전자 검사 등 보건 검사 부스 존을 설치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는 행사 영상 촬영을 도맡았고 1인 미디어 체험과 무료 스티커 사진관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다양한 소품으로 사진을 찍고 갈 수 있도록 진행했다. 관광학부는 천연 주스 무료 제공, 디퓨저 만들기, 청춘 포토존과 함께 사상강변 카페라는 부스도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줬다. 또한 외국어 계열은 글로벌 전통 의상 체험, 매듭 팔찌 만들기, 디 아이 와이(두 잇 유어셀프) 종이 탈 만들기, 티셔츠 그라피티(티셔츠 그림 그리기) 등을 운영했다. 이 외에도 주 최 측에서 어린이를 위한 에어바운스와 풀장 시설과 물총 놀이 페스티벌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수상레포트 한마당은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여름의 끝자락에 부산 시민, 사상구 주민들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줬다.

‘호신용 휘슬 목걸이 만들기 교실’이라는 부스를 운영했던 레포트과학부 박윤지 학생

은 “호신용으로 들고 다닐 것을 생각하다가 인터넷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고 배워 와서 부스 방문자들에게 제공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1인 미디어와 ‘무료 스티커 사진관’ 부스를 운영했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김강훈 학생은 “준비과정부터 고가의 장비 대여와 보관 문제 등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많은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부스를 방문하여 제맛있게 즐기고 가시는 표정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 방문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으리라 믿는다. 사상구에서 매년 발전하는 많은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는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았다. 이날 개최식은 15일 진행됐으며, 개회 식순은 레포트과학부의 스피닝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식전공연 ▲내빈소개 ▲인사말씀 ▲경품 추첨 ▲목걸이 건강검조 ▲기념촬영 ▲운영방법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스피닝 공연을 선보인 레포트과학부의 학생들은 노래의 박자에 발을 맞췄다. 이 공연을 관람하는 방문객들에게는 마치 하나 된 모습처럼 보였다. 목걸이 건강검조는 사상구민의 노래인 ‘행복 가득한 사상’에 맞춰 함께 체조했다.

우리 대학의 조종승 부총장은 개회식에서 “사상구는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지만, 이것을 활용한 지역사회 행사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동서대학교와 사상구청이 더욱 협력하여 이번 행사가 서여름의 끝자락에 부산 시민, 사상구 주민들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줬다.

지은서 기자
eunseo9830@gmail.com

동서대, 외국인 유학생 입교식

기존 유학생 734명 포함, 총 1118명으로 늘어



▶장제국 총장과 외국인 학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12일 동서대학교 뉴 밀레니얼관 내부에 있는 소향아트홀에서 ‘2018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입교식’이 열렸다. 이번 2학기에 동서대학교에 입학한 신입 유학생은 ▲학부 230명(일반·편입·복수학위 교환학생·교환학생) ▲석사 46명 ▲박사 26명 ▲연수 82명 등 총 384명이다. 기존 유학생 734명을 포함하여 현재 동서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1118명이 됐다. 유학생들은 가나,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독일,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불가리아, 브라질, 알제리, 스웨덴, 우간다, 인도, 일본, 중국, 칠레,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파라과이, 필리핀 등 약 64개국에서 동서대학교로 입학했다.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륙별로 본다면 아시아 22개국, 미주 9개국, 유럽 12개국, 아프리카 12개국에서 동서대학교에 입학했다.

이날 입교식은 개회사 및 축하 말씀, 외국인 유학생 전담 기구(글로벌 스타디스 인스티튜트) 학과 담당 교수 소개, 학생 소개 및 환영사, 축하 무대,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 무대에서는 동아리 예소리와 뮤지컬과 학생들이 사물놀이와 뮤지컬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반갑게 환영했다.

유학생들은 동서대학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전담 기구(글로벌 스타디스 인스티튜트)를 통해 학업적인 지도를 비롯하여 대학 생활에 있어 전반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 전담 기구는 2016년 8월 29일에 개관한 빌딩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1000명이 넘어가는 시대에 발맞춰 건설됐다. 지하 1층과 지상 7층의 규모로 동서대 디자인 교육관 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건물이다. 외국인 유학생 전담 기구 내부에는 사무실, 액티비티클래스룸, 글로벌세미나실, 영상강의실, 디자인도서관, 디자인갤러리, 디자인오토리 등 동서대학교에 입학한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돼 있다. 외국인 유학생 전담 기구는 동서대학교 후문 근처에 위치해 있다. 동서대는 유학생들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8월 25일 유아티관에서 두 차례로 나눠 오리엔테



▶소감을 말하는 외국인 학생들

이션을 개최했다. 오전에는 영어로, 오후에는 중국어로 진행됐다. 9월 6일에는 부산 해운대 소향아트홀에서 ‘2017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전담 기구 환영회’ 행사를 가졌다.

장제국 총장은 “동서대학교에서 유학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 야우무 노세는 “저는 도쿄와 가까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첫 번째 나라입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을 항상 꿈꿔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곳에서 공부한다는 생각에 저는 지금 너무 기쁩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어와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 세계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오는 정보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 눈과 발로

보고 배울 것입니다. 제 태도가 저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참석한 신입생들은 “동서대 유학 생활을 통해 전문 지식은 물론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많은 국제 인맥을 쌓는 일에 힘을 쏟겠다.”라며 “유학 생활이 끝날 즈음에는 몰라보게 발전해 있을 모습에 하투하투가 설렌다.”라고 말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신입 유학생뿐 아니라 재학생들도 전원 참석해 입학을 축하했다.

동서대학교는 학기마다 수백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동서대학교에 배우러 오는 대학으로 발전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동서대학교에 유학을 오는 이유는 언어연수, 학부 편입 및 학부 신입생, 학부·대학원 교환학생, 복수학위, 석사·박사 입학 등을 위해 머나먼 길을 거쳐 동서대학교로 공부하러 본교를 입학했다. 동서대학교는 이제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다국적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글로벌 캠퍼스로 성장했다.

신혜정 기자, 장희진 수습기자
hyejung4947@gmail.com

취업 꿀 정보 여기 다 모았다!



▷사진출처 - 네이버 블로그

첫 번째

시간 공략하기

아침을 공략해보자. 채용 박람회의 상담 부스는 무조건 활용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성실한 이미지의 지원자를 선호한다. 인사담당자는 상담 부스를 찾는 모든 지원자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강력한 인상을 주는 경우는 다르다.

특히 첫 번째 방문자가 된다면 더욱 좋다. 상담부스에 두 번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처음 방문한 부스에 가서 준비한 질문의 80%를 물어본 후 약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찾아가보자. 더욱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인맥 공략하기

현직자가 오는 채용설명회, 캠퍼스 리쿠르팅, 채용 상담은 반드시 참석하자. 특히 캠퍼스 리쿠르팅에 오는 신입사원들은 그 백색 취업의 문을 뚫고 성공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믿음직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같은 길을 바라보는 취준생 후배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직에 대한 갈망, 꼭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 열정을 보여주자. 자기소개서에 써야 하는 소재, 면접 통과 비결 등 알짜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질문 공략하기

질문을 하더라도 좋은 질문을 해야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좋은 질문은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채용 인원수나 경쟁률과 같은 질문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막연한 질문, 광범위한 질문도 좋지 않는 질문에 포함된다. 자신의 열정과 갈망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활동 중 가장 강조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와 같은 질문이 이에 해당된다.

땀땀한 햇빛에 더위를 피하고 싶지만 하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서늘해진 날씨가 찾아왔다. 시원한 바람, 맑고 높은 하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가을이지만 마냥 나들이를 즐길 것이 아니라 취업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가고 싶은 기업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좋다.

취업 박람회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면서 더 멋진 동서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에 2018년 하반기 취업박람회 정보들을 찾아보았으니 함께 알아보자!

#2018 잡페스티벌

• 일시 : 2018. 11. 08
• 시간 : 14 : 00 ~ 16 : 00
• 장소 : 벅스코 대전시장 홀
• 대상 : 전 연령층
• 신청기간 : 2018. 10. 22. ~ 2018. 11. 07.

#2018년 수영구 채용박람회

• 구분 : 박람회
• 일시 : 2018. 10. 18.
• 시간 : 10 : 00 ~ 15 : 00
• 장소 : 도시철도 수영역 (2호선) 역사 내
• 대상 : 구직자
• 신청기간 : 2018. 10. 18.

#2018 서구 일자리 박람회

• 구분 : 박람회
• 일시 : 2018. 10. 13.
• 시간 : 10 : 30 ~ 16 : 00
• 장소 : 구덕운동장
• 대상 : 전 연령층
• 신청기간 : 2018. 9. 20. ~ 2018. 10. 13.

#동서대학교 취업 박람회

• 구분 : 박람회
• 일시 : 2018. 11. 07.
• 시간 : 14 : 00 ~ 17 : 30
• 장소 : 스톤먼트 플라자 3층
• 대상 : 동서대 재학생
• 신청기간 : 행사일 참석

#에너지산업&에너지 밸리 채용박람회

• 구분 : 박람회
• 일시 : 2018. 11. 02.
• 시간 : 10 : 00 ~ 17 : 00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상설전시관
• 대상 : 전 연령층
• 신청기간 : 행사일 참석

#본아이에프

• 구분 : 설명회
• 일시 : 2018. 11. 01.
• 시간 : 14 : 00 ~ 17 : 00
• 장소 : 아주대학교 종합관 105호
• 대상 : 전 연령층

#원익그룹

• 구분 : 상담회
• 일시 : 2018. 10. 11.
• 시간 : 10 : 00 ~ 17 : 00
• 장소 :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학술정보관 1층
• 대상 : 전 연령층

#코스맥스그룹

• 구분 : 상담회
• 일시 : 2018. 10. 11.
• 시간 : 10 : 00 ~ 17 : 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자라캠 1공학관
• 대상 : 전 연령층

#티맥스소프트

• 구분 : 설명회
• 일시 : 2018. 10. 10.
• 시간 : 14 : 00 ~ 16 : 00
• 장소 : 순천향대학교 공학원 제2세미나실
• 대상 : 전 연령층

#한미약품

• 구분 : 설명회
• 일시 : 2018. 10. 10.
• 시간 : 10 : 30 ~ 12 : 00
• 장소 : 순천향대학교 디자인관 3층 5202호
• 대상 : 전 연령층

자료출처 : 잡코리아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초기창업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사업’

동서대 창업지원단 성공적인 발걸음



▷동서대 창업 지원단

동서대 창업지원단은 글로벌 창업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2일 까지 2주간 부산시의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권 5개 창업선도대학과 연합하여 ‘초기창업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초기창업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글로벌 시장진출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서대학교에서는 김재민 (컴퓨터공학부 4), 강태석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4), 엄성빈 (글로벌 경영학부 4) 학생이 참여했다. 이번에 선발된 부산지역 5개 창업선도대학, 15명의 대학생 (예비)창업자에게는 아이디어 발전과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정립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교육 프로그램에 2주간 참여하는 혜택이 주어졌다.

실리콘밸리 현지 스타트업, 법률, 투자펀드, 인큐베이터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현장과 사례 연구 위주의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교육 마지막 날에는 참여 학생 모두가 2주간 발전시킨 창업 아이템을 실제 벤처캐피탈 관계자와 외부 심사위원 앞에서 투자자에게 피칭하는 데모데이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동서대학교 한경호 창업지원단장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기창업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사업을 기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창업인재육성을 위해 창업지원단이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10일 동서대학교 창업

지원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2018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주)아파트너가 (주)이엑스택으로부터 1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에 투자를 유치한 (주)아파트너는 동서대 4회 졸업생 권해석씨가 대표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전자투표, 공지사항, 주민소통, 각종커뮤니티시설 예약, 씨씨티비, 방문차량예약, 안심주차 등 아파트의 새로운 스마트라이프를 제시하는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현재 (주)아파트너는 최근 1군 대형 건설사, 한국주택공사, 전국 지자체 등과 협정을 맺고 490여 단지에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유치를 계기로 2018년까지 1,000개 단지 100만 세대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이엑스택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성우전자의 계열사로서, 스마트 교통카드, 금융, 에이에프씨 단말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티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위주의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교육 마지막 날에는 참여 학생 모두가 2주간 발전시킨 창업 아이템을 실제 벤처캐피탈 관계자와 외부 심사위원 앞에서 투자자에게 피칭하는 데모데이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한편, 지난 9월 10일 동서대학교 창업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회계 관련 자격증을 알아보자!

회계 전문가가 되기 위한 회계 자격증 추천



▷사진출처 - 네이버 포스트

#세무회계

세무회계란 납세자(개인 또는 기업)가 정부(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세법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세무회계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국제기본법 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2013년부터 민간자격이던 세무회계 1급, 2급, 3급 자격시험이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격되었다. 세무회계는 컴퓨터를 이용한 실기시험은 없고 이론시험만

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난이도가 매우 높다.

#기업회계

기업회계 1급, 2급, 3급이란 한국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으로,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등 기업회계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능력을 객관화된 등급으로 인증하는 시험을 말한다.

기업회계자격시험은 기업회계업무에 필요한 전문자격 이론지식과 실무에서의 활용능력을 기업회계 1급-2급-3급으로 구분하여 측정·평가하는 필기시험이다. 기업

회계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학습내용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매매업, 서비스업 등의 상기업은 재무회계와 회계 원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기업은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회계의 경우 취업 시 필수자격증은 아니다.

#전산세무회계

전산세무회계란 한국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세무회계 분야의

실무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전산세무회계시험은 전산회계 1급, 2급과 전산세무 1급, 2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전산세무회계시험의 특징은 이론시험(30%)은 객관식 4지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실무시험(70%)은 컴퓨터에 설치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기시험을 치른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다. 다만,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 이후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회계 관리

회계 관리 자격시험은 삼일회계 법인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수준에 따라 회계 관리 1급, 회계 관리 2급 시험으로 구분된다. 회계 관리의 회계, 세무, 원가, 경영관리 등 재경 분야의 실무전문가임을 인증하는 자격시험이다. 회계 관리 2급은 회계에 관한 기본지식을 평가하고 회계 관리 1급은 전반적인 회계업무 수행을 평가한다. 회계 관리 1급은 기업의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회계 실무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회계 관리 2급은 가장 기본적인 회계 원리에 관한 지식 평가를 평가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회계, 세무 분야의 직무상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격증이지만 회계 관리 자격증만으로는 취업과 직접 연결되거나 우대, 또는 독립적인 가산점을 받기 어렵다.

#전산회계운용사

전산회계운용사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회계세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말한다. 전산회계운용사는 1급과 2급, 3급의 등급이 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전산회계운용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실기시험은 컴퓨터 작업형으로, 100점을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전산회계운용사 2급 시험은 전문대학 졸업수준의 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의 회계실무자 또는 회계실무 책임자로서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자산관리사

자산관리사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자산관리사 시험은 객관식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진다. 각 부분 성적이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각 부분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성취하면 합격이다. 자산관리사는 금융기관 영업부서의 재테크 팀에서 고객의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 가족상황 등 고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생활 계획상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산설계에 대한 상담과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권 취업준비생들 중에서 은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은행 3종 세트 중의 하나로 불리는 만큼 관심이 높다. 은행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필수

자격증으로 인식되고 있다.

#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려면 시험에 합격한 후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일명 펀드매니저라고 하며,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객관식으로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한 과목의 전체 정답비율이 70% 이상이면 합격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은 증권, 금융사에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증이다.

#신용분석사

신용분석사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신용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신용분석사는 은행의 기업금융 분야에 필요로 하는 자격증으로, 은행에서 기업대출을 하기 위해 기업의 신용위험을 분석하는 일을 한다. 신용분석사의 경우 신용위험분석사와는 달리 시험에 합격한 후 별도의 교육 없이 바로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신용분석사는 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여신전문가 자격증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격증이다. 여신심사역의 경우 이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응시할 수 있고, 신용위험분석사의 경우 이 자격으로 1차 과목 중 3과목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책 속의 풍경

좋은 추억이 주는 우리 모습의 솔루션



•책 제목 :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저 자 : 김진희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타인에게 비치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숨기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함께했던 만화영화 '보노보노' 속 숲속 친구들은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 책,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봤을 만화 '보노보노'에서 나왔던 일들을 우리 현실에 접목시키면서 우리가 가진 고민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준다. 혹시라도 '보노보노'의 내용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주인공인 파란 해달 보노보노는 항상 명 한 모습으로 '배가 고파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조개를 손에 꼭 쥐고 다니는 해달이다. 그렇다. 보노보노는 항상 걱정하며 사는 해달이다. 소심하고 걱정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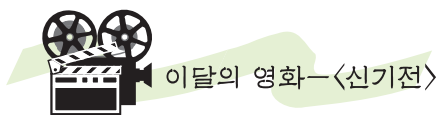
해달... 이게 보노보노를 설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의 친구들은 각각 너구리인 너부리, 다람쥐인 포로리가 있고 때론 새로운 친구들이 나온다. 너부리는 과묵하고 항상 보노보노와 포로리가 답답한 행동을 할 때 그들을 때리고 소리를 지른다. 소심한 포로리는 항상 너부리에게 맞다 보니 "때릴 거야?"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곤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너부리는 또 포로리를 때리기 시작한

다. 포로리, 보노보노, 너부리 이 셋은 완벽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책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에서 작가는 이들의 모습, 각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숲속 동물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투영시켜보는데 그 모습이 읽는 독자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 한가지 일화를 이야기하자면 '곤란함'에 대해 보노보노가 고민하고 있었다. 이 고민을 너부리에게 이야기하니 너부리는 나중에 곤란해하면 되는 일을 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쏘아붙이고 포로리는 당사자보다 더 고민하며 분위기를 다운시킨다. 그때 숲 속 에 사는 철학적인 고양이 아옹이 형이 다가온다. 아옹이 형은 보노보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보노보노, 살아있는 한 결국 곤란하게 되어있어. 살아있는 한 무조건 곤란해. 곤란하지 않게 사는 방법 따윈 결코 없어. 그리고 곤란한 일은 결국 끝나게 되어있어. 어때? 이제 좀 안심하고 곤란해할 수 있겠지?" 이 말은 곤란한 일을 겪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큰 과등을 준다고 나는 느꼈다. 어떠한 일로 곤란해하는 나에게 아주 좋은 위로가 되는 말이었다. 항상 걱정하고 소심하게 생각하는 보노보노에게 아옹이 형은 그에 맞는 충고를 해준 셈이다. 그

리고 이 이야기를 읽었던 나 또한 이 말을 생각하며 내 걱정거리 들을 바라보니 내가 해결 가능한 범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이상의 것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걱정은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작가는 이러한 응용을 원했던 것 같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저 보노보노가 맞고 너부리가 때리는 그 장면들이 재미있었고 그래서 이 만화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다. 어린 만큼 살아가면서 어려움 같은 것 또한 잘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 깊이 있는 생각 또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저 잔잔한 만화로 밖에 생각되어 왔던 보노보노였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큰 이 상태에서 이 글들을 읽고 이 만화를 한 번 더 보면 다시금 보노보노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할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을 개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점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타인을 배려하며 자신만의 선을 잃지 않는 방법 등을 보여주면서 이 책은 우리들의 어렸을 때 친구 보노보노를 통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도 바꿀 점을 주로 생각해왔던 이들에게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법을 생각하게 해 준 책이 바로 이 책이다. 흔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한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처럼 생각 또한 맑고 깊어지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해본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스푼
김윤창 수습기자
mcdbcskd@gmail.com



세종대왕의 또 다른 업적



•영화 제목 : 신기전
•영화 감독 : 김유진

영화 <신기전>은 '충무로의 50대 청춘'이라고 불린 김유진 감독의 작품이다. 김유진 감독은 촬영 당시 예순에 육박하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메가폰을 잡고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하며 직접 배우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김유진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2009년 황금 촬영 감독상을 수상했고 극장에서도 누적 관객 수 372만 명을 동원하면서 흥행 면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영화 <신기전>은 2008년에 개봉한 영화로 배경은 1448년 세종 30년이다. 영화는 조선의 보부상단인 설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설주는 나라의 위기나 처한 상황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 개인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친분이 있던 내급위장 장관의 부탁으로 홍리라는 여인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게 되는데 그 여인의 정체가 궁궐했던 설주는 여인에게 계속 정체를 묻지만 끝내 답해 주지 않았다. 이후 명나라 사신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한몫을 제대로 챙기려 한 설주 그러나 야속하게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설주는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 방황하던 설주 앞에 등장한 건

내급위장 장관 그는 홍리의 정체를 알려주며 한 가지 부탁을 한다. 조선은 명의 간섭을 피해 새로운 화기를 비밀리에 제작하고 있었다. 조선의 새로운 화기가 두려웠던 명나라는 화포 연구소를 습격한 후 연구소 도감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홍리는 연구소 도감의 딸이었고 아버지를 이어 조선의 새로운 화기를 만들어야 했다. 내급위장의 부탁은 홍리를 도와 새로운 화기를 제작해달라는 것이었다. 내급위장의 부탁을 받은 설주는 자신은 이기적인 소인배라며 그런 위험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향후 장사를 할 때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해준다는 내급위장의 말에 설주는 결국 화기 제작에 나서게 된다.

영화의 스토리는 이후 화기를 제작하는 설주와 홍리의 모습과 이를 방해하는 명나라 사신들을 을 그려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설주와 명나라 사신들이 충돌하는 만큼 영화에는 액션신이 자주 등장하는데 칼을 이용한 액션은 날카롭고 섬세하며 신기전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그려졌다. 다만 10년 전의 영화라 특수 효과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영화는 단순하게 새로운 화기(신기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신기전을 만들기 위한 백성과 관료의 희생을 보여주는 한편 나라를 등지고 명나라의 편에 서서 신기전 제작을 방해하는 진짜 소인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신기전 개발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세종대왕의 모습도 볼 수가 있다.

세종대왕의 대표적인 업적인 훈민정음은 백성의 교육을 위한 것이고 해서, 물시계, 측우기, 농사직설 역시도

백성의 농업을 돕기 위해 세종대왕이 발명한 것이다. 또한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고아들의 입양, 임신한 관노비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에서 비롯된 것인데 신기전 또한 예외는 없다. 외부세력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 50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기전 개발을 도운 세종대왕, 그가 지금까지 조선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고 이름에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는 것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뒷받침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영화 속 세종대왕의 대사 중 "짐은 왕이요, 그대들은 황제이니라"라는 대사와 함께 설주와 홍리에게 큰절을 올리는 모습은 영화 속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오늘날 정치인들이 세종대왕의 반이라도 이런 애민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

영화는 조선왕조실록에 쓰인 신기전의 내용을 차용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일부에서는 "실제 역사와 다르게 고증되었다", "과장되었다"라며 영화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와 마찬가지로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애민정신은 실제 역사와 다르지 않으며 과장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한글날을 맞이하여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 세종대왕의 업적 중 하나인 신기전에 대해 알고 싶다면 영화 "신기전"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영화
임지성 수습기자
limjising0128@gmail.com

맞춤법, 당신은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자주 틀리는 맞춤법!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안되	안돼	역할	역할
어의없다	아이없다	나중에 뵈요	나중에 뵈오
금새	금세	건들이다	건드린다
왜만하면	웬만하면	애폐다	애폐다
웬 딱이야	웬 딱이야	설겅이	설거지
어따 대고	얼다 대고	일일이	일일이
할게요	할게요	어떻해	어떡해/어떻게 해
압되나요	안되나요	문안하다	무난하다
바랭	바람	설레임	설렘

▷사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어려웠던 시절, 우리말에 관심이 많았던 어느 사람이 우리의 문법을 최초로 정립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국어학이 지금까지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말하길 국어는 너와 나를 잇는 무지개다. 한 나라가 잘되고 못 되는 열쇠는 그 나라 국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다. 그의 이름은 주시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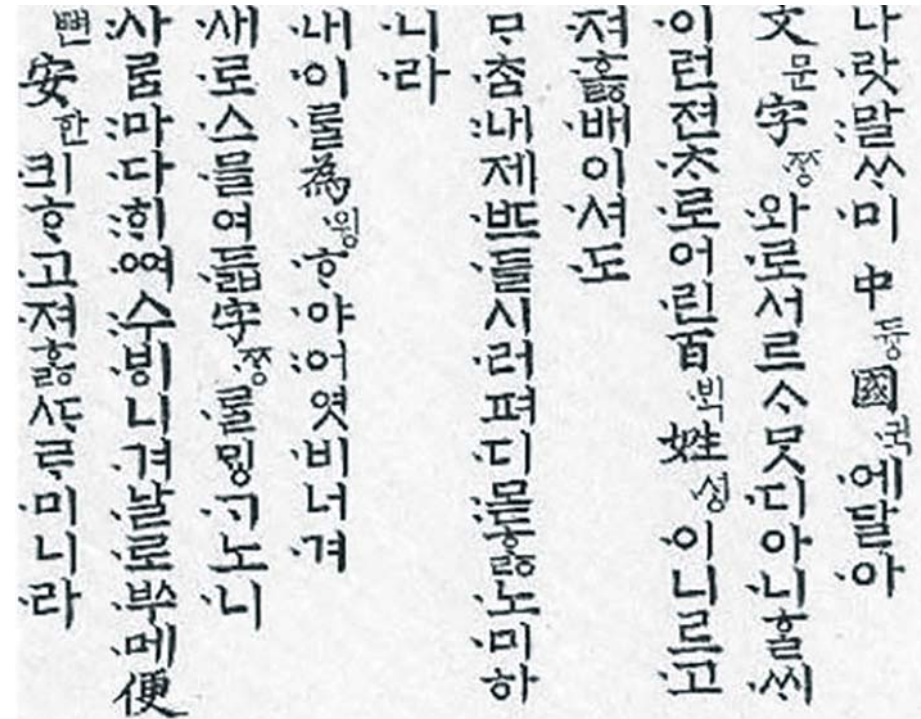
맞춤법의 정확한 어원은 문자 체계로서의 한글 자모를 확립하고 그것으로써 국어를 표기하는 규범이다. 즉, 한자나 외래 문자 체계에 의한 표기 규범은 해당되지 않는 점이다. 현재 우리가 쓰는 맞춤법은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만들어졌다. 조선어학회는 주시경 등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 전에 창립되어 식민지 기간을 거쳐 오면서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위해 앞장섰던 학술단체이다. 우리가 지금 쓰는 맞춤법은 조선어학회에서 만들어진 맞춤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한다.

한글맞춤법은 훈민정음 단계를 지나 현재까지 발전되어 왔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다. 그리고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됐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한글의 맞춤법 또한 계속 바뀌었다. 예를 들면 아래 하와 반치음 등이 현대에 와서 사라진 것들이다. 호칭 또한 많이 바뀌었다. 세종대

왕이나 신하들은 모두 훈민정음, 정음이라고 불렀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훈민정음은 주체적인 문자라는 의미로 국문이라고 불렀다. 한글이라는 이름이 적힌 기록은 없지만 한글이라는 호칭이 일반화된 것은 조선어학회가 훈민정음을 반포한 기념일을 한글날이라고 부르면서 한글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점 늘어나는 줄임말

언젠가부터 갑분싸, 갑분피, 버정, 베라, 아이 등등 굳이 줄여도 되지 않은 말을 줄여서 쓴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줄임말이나 은어를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 2017년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페이스북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첫 번째 질문은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비속어를 들나요?'였다. 제일 많은 답을 한 청소년들은 '대화 내용마다 들는다.' (55.6%)였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종류의 비속어나 은어를 듣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비속어와 줄임말이 (100%) 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의 50% 이상이 줄임말이나 비속어를 쓰고 그 내용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중 줄임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심각한 결과이다. 줄임말을 계속 쓰게 되면 순수 우리말의 좋은 말들이 사용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매우, 아름답다, 가장자리, 슬기롭다 등등의 말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열을이나 온누리의 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처럼 우리가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줄임말이 계속 사용되면서 세대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10대·20대들의 대부분이 줄임말이나 은어가 점점 많아지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에도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께 '인싸'가 뭔지 아나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부모님은 얼마나 될까? 이는 소통의 문제가 된다. 지금은 아무렇게나 쓰는 줄임말이 한글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너무 많은 외래어

외래어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우리나라 말에 정착하여 쓰이는 말이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실생활에 정착한 외래어는 너무 많다. 심지어 가게 간판들도 우리말을 쓰는 경우보다 영어나 외국어 또

는 외래어로 쓰이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버스, 엘리베이터, 아르바이트, 택시, 롯데리아, 이니스프리 등이 있다. 이니스프리나 스낵푸드 등 영어로 쓰인 간판을 보면 익숙하지만 한글로 쓰인 간판을 보면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간판들이 다 영어나 외국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017 대한민국 옥외광고 포럼'에서 한글 간판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적도 있다.

서울에 인사동이나 서촌에 있는 가게 간판은 모두 외래어나 외국어가 아닌 오직 한글로만 쓰여 있다. 특히 서울 인사동은 특화거리로 서울특별시에서 지정됐다. 그리고 옥외광고에 관련하여 영문표기가 아닌 한글 표기를 하도록 지침 되어있다. '인사동의 한글 간판이 독특해 보이는 것이 나만 그런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에 인사동이라고 치면 한글 간판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나 기사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한글을 지키기 위해 작지만 특색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한글날을 기념하며 지금부터 줄임말을 서서히 줄여보고 예쁘고 고운 말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

이주원 기자
suo4793@gmail.com

축제·공연 소식



부산 영도다리축제

•기간 : 2018. 10. 12. (금) ~ 2018. 10. 14. (일)
•장소 : 영도대교 및 봉래동 물양장 일원
•주최 : 부산광역시 영도구/영도문화원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기간 : 2018. 10. 20. (토) ~ 2018. 10. 28. (일)
•장소 :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의 영화의전당, 부산시민공원, 해운대 등
•주최 : 부산광역시/부산관광공사(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사업단)



부산불꽃축제

•기간 : 2018. 10. 27. (토)
•장소 : 광안리해수욕장
•주최 : 부산광역시/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서울역새축제

•기간 : 2018. 10. 12. (금) ~ 2018. 10. 18. (목)
•장소 :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 일원
•주최 : 서울특별시



진주남강유등축제

•기간 : 2018. 10. 01. (월) ~ 2018. 10. 14. (일)
•장소 : 진주남강, 진주성 일원
•주최 : 진주시, 진주문화예술재단/진주남강유등축제 제정위원회



동래읍성 역사축제

•기간 : 2018. 10. 12. (금) ~ 2018. 10. 14. (일)
•장소 : 동래문화회관, 읍성광장, 온천전 (세병고) 일원
•주최 : 동래구/동래문화원, 동래읍성역사축제추진위원회



이태원 지구촌축제

•기간 : 2018. 10. 13. (토) ~ 2018. 10. 14. (일)
•장소 : 이태원관광특구(이태원로, 보광로) 일대
•주최 : (사)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후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 고유의 멋을 살린 옷차림!

남들의 이목을 한 번에 사로잡는 맵시꾼이 되어보자!

2018년 10월 9일은 음력 9월 1일 바로 우리 고유의 문자가 만들어진 한글날이다. 572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 고유의 멋, 즉 한글의 멋을 살린 옷차림 및 우리의 옷맵시를 살려주기에 좋은 장신구 등을 한번 알아보자! 한글이 우리들의 옷에 접목 되었을 경우 초성, 중성, 종성이 한데 모여서 날자를 이루는데 단순한 형태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졌을 때 조화로움 속에 미적인 아름다움이 더욱 잘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최근 해외에도 한류의 바람이 불면서 한글을 넣은 옷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옷 자체에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좋은 요소로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옷뿐만이 아니다 운동화에 한글을 넣으므로 멋진 한색 단화에서 단숨에 특별한 무늬가 있는 화려한 운동화로 탈바꿈 될 수 있다. 더해서 거기에 여성들 같은 경우 많이들 가지고 다니는 손가방에도 한글이 들어가므로 인해 특이한 매력으로 보일 수 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한글이 들어간 장신구들과 옷들을 알아보자.



▷사진출처 - 네이버 쇼핀



긴팔 겹옷

수수하고 무난하지만 이목을 조금만 끌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는 옷맵시는 바로 한글이 들어간 밝은 색상의 겹옷이다. 이 옷들은 평소 무난한 옷맵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데 무난하되 너무 식상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가을이 점점 다가오면서 기온 또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팔 옷에서 긴팔의 두툽한 겹옷을 찾거나 아니면 입고 벗을 수 있는 정장 상의 등을 찾게 된다. 이런 경우 무난하게 연한 갈색의 상의를 찾아서 안정적인 옷맵시를 추구할 수도 있지만 한글이 들어간 긴팔 겹옷을 입음으로써 그보다는 무난하게 옷을 입을 수 있고 식상함을 없애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사실 많은 옷 장인들은 꽤 예전부터 한글이 들어간 옷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전시회 등을 개최할 정도의 열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옷들을 접하는데 큰 어려움 또한 없을 것이고 옷들의 조화 또한 큰 어려움 없이 공감이 잘 맞을 것이다. 지금 입고 있는 긴팔 겹옷과 청바지가 식상해 보인다면 이목을 끌 수 있는 한글이 들어간 겹옷들을 입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옷의 매력에 빠지면 이제는 단색의 긴팔 겹옷을 보다 한글이 들어간 특이한 옷들을 더 선호하게 되므로 자신만의 독특한 옷맵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진출처 - 이상봉 해피빈 편집 페이지 캡처

운동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긴 청바지를 많이 입게 됐다. 청바지에 한색의 옷 혹은 신발들은 공감이 잘 맞는 옷맵시로 유명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한 한색의 단화 혹은 신발보다는 특이한 무늬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운동화는 어떨까? 운동화, 그중에서의 단화는 모양이 나 형태가 한정적이라서 수수한 형태 이거나 강렬한 인상을 주거나 등의 극과 극의 옷맵시를 보인다. 한색 긴팔 겹옷에 청바지에 빨간 운동화는 어찌 보면 불협화음 같아 보이지만 사실 무난함에서 나오는 식상함을 어느 정도 방지해주는 효과를 준다. 이처럼 옷맵시가 무난한 사람들의 경우 특이한 무늬의 옷 혹은 신발 등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면 자신의 옷맵시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사실 단화 혹은 운동화 같은 경우 자신의 발 모양에 따라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발 모양에 맞지 않는 단화를 선택할 경우 신발의 모양이 무너져 내리면서 신발이 보기 흉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발 크기를 먼저 잘 알고 그 뒤에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발볼이 조금 넓은 편 일 경우에는 자신의 발 크기에서 한 치수 혹은 반 치수 큰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한글이 쓰인 운동화를 통해 이번 가을 나만의 이목을 끄는 옷맵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사진출처 - LAKAI KOREA

손가방, 지갑

여성들의 경우 옷맵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손가방 혹은 지갑 일 것이다. 특히 손가방 같은 경우 명품 상호를 선호하는 여성들이 많을 정도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민감하다. 흔하지 않고 맵시가 좋은 가방으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며 이목을 집중시켜보는 것은 어떤가? 흔히 손가방의 문양은 가장 잘 알려진, 흔히 명품이라고 불리는 고가의 상표의 문양과 비슷한 것들을 많이 선호한다.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지만 사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양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다. 하지만 그 문양을 한글로 바꾸어 본다면 어떨까? 특이함과 희귀함의 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검은색 단색의 가방 같은 경우 물론 차갑고 무거운 느낌이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 하면 너무 뻔한 옷맵시로 보일 수도 있다. 반대로 문양이 들어간 가방의 경우 그 문양의 모양에 따라서 옷맵시 자체의 불협화음을 가져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무게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글 문양의 가방은 어떤가? 한글 문양의 경우에는 문양의 배치에 따라 무게감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가볍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하면 아주 괜찮은 옷맵시를 보일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갑 또한 한글문양을 사용한 것이 있는데 작은 동전지갑이라 할지라도 의외의 무게감을 형성할 수 있다. 기존의 손가방들의 무늬가 너무 극과 극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면 한글 무늬의 손가방을 추천한다.

모자

만약에 모자를 쓰고 싶는데 야구모자 같은 모자로 인해 인상이 어두워 보일까 봐 망설여진다면 한글 모자를 추천한다. 모자 전면부에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단어 혹은 말들을 통해 모자를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두운 인상에 대한 오해 등을 막을 수 있다. 앞서 말한 옷 혹은 신발에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자를 추천한다. 또한 반지, 목걸이가 너무 식상하다고 느끼는 연인들에게 이런 모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와 혹은 구절들을 맞춰서 쓰고 다니면서 커플들끼리의 재미있는 옷맵시를 연출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상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무서워하거나 오해를 자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모자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고 인상 또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굳이 저렇게 익살스러운 구절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야구모자가 식상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한글 무늬가 들어간 야구모자 혹은 핑크색의 모자 등을 통해 식상함 또한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모자를 잘 고민이 있다면 단순한 야구모자보다는 희귀하지는 않지만 재미있는 모자를 통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김민창 수습기자
mcdbsckd@gmail.com



▷사진출처 -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모돈것, 온한글

잇고 있었던, 아름다운 순우리말

“저기 고양이 진짜 세줄귀(세상에서 제일 귀엽다)야”, “너 때문에 갑분싸(갑자기 분위기 싸해짐) 됐잖아”, “시험공부 못했는데 이상망(이번 생은 망했다)” 등등 주변에서도 요즘 많이 들어보고, 재밌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써본 용어일 것이다. 유행하고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자주 쓰는 만큼 오히려 줄여서 쓰고 있는 용어들을 모르게 되면 대화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졌다. 말을 줄여서 쓰고,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는 지금, 이제는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기보다는 자주 쓰게 되어 일상화가 되었다. 어느새 우리는 원래 단어의 뜻이 있는 한글을 줄이거나, 우리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여 현재 한글 아닌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이 다가온 한글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순우리말에 관심을 가지면서 몰랐던 순우리말의 고유 아름다움과 일상에서도 쉽게 접하며 쓸 수 있는 순우리말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순우리말이란 고유어의 다른 말로 토박이말 또는 순우리말이라고 불린다. 순우리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23%를 차지할 만큼 한국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순우리말은 순우리말은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예쁜 순우리말 단어 몇 가지를 가나다 순서대로 소개하자면 고스르디자(며, 보리 등이 벨 때가 지나서 이삭이 구부러져

양상하게 되다.), 고운 매(아름다운 맵시나 모양, 또는 아름다운 여인), 가랑비(조금씩 내리는 비), 가운누리(세상의 중심), 그르나래(그런 뜻이 아름다운 날개), 편(유난히 귀엽게 여겨 사랑하다), 구순 하다(서로 사귀거나 지내는데, 사이가 좋아 화목하다), 꽃내음(꽃의 냄새), 꼬리별(해성), 꽃별(꽃처럼 예쁜 별), 너나들이(서로 너나 나니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사이), 나르샤(비상하다, 날아오른다), 늘해랑(밝고 강한 사람), 늘솔길(언제나 솔바람이 부는 길), 늘 해랑(밝고 강한 사람), 난길(밝고 환한), 나비잠(갓난아기가 팔을 머리위로 벌리고 편히 자는 잠), 다스나(사랑하는 사람), 단미(사랑스러운 여자), 도담도담(아이가 별 탈 없이 자라는 모습), 도란도란(여럿이 나직한 목소리로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소리), 또바기(언제나 한결같이 똑 그렇게), 라미(동그라미에서 따온 이름), 로운(슬기로운), 라온제나(즐겁고 기쁜 우리), 마루(하늘), 미리내(은하수), 미쁘다(미운성 있다, 믿을 만하다), 바오(보기 좋게), 빛골(세상 사람들의 빛), 새론(늘 새로운 사람), 새별(금성), 소담하다(생김이 탐스럽다), 시나브로(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조금씩), 수름(우산), 엄지(엄지손가락에서 따온 이름), 은하(맑은 날 밤), 음전(말이나 행동이 굵고 점잖음), 전별(작은 별

자잘한 별), 지음(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지음), 죽기(생기 있고 재치있는 기상), 큰 술(크고 우아하게 잘 자란 소나무), 키 클(키와 마음이 클 사람), 타니(귀엽이), 툇 싸(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새싹), 꽃내(새로 나온 푸성귀), 피네(꽃이 피네), 하람(꿈의 뜻), 흰여울(물이 맑고 깨끗한), 하제(내일), 호노니(누군가를 아주 그리워함) 등이 있다. 생각보다 많은 순우리말이 있었고, 보면서 우리도 몰랐던 단어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 단어와 의미를 보면 순우리말이 상황에 맞는 표현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순우리말로 월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단순히 9월 10월로 쓰는 게 아니라 월별마다 정해진 순우리말로 쓸 수 있었다. 1월은 해오름달로 새해 아침에 힘 있게 오르는 달, 2월은 시샘 달로 일 센 추위와 꽃샘추위가 있는 겨울의 끝달, 3월은 물오름 달로 피와 물이 들어오르는 달, 4월은 앞 새 달로 물오른 나무들이 자마 외 풍우는 달, 5월은 누리 달로 온 누리에 생명의 소리가 가득 차 넘치는 달, 6월은 견우직녀 달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아름다운 달, 8월은 타오름 달로 하늘에서 해가 땅위에서 가슴이 타는 정열의 달, 9월은 열매 달로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 달, 10월은 하늘연달로 별달 피에 아침의 나라가 열린 달, 11월

은 마름 달로 가을에서 겨울로 치닫는달, 12월은 매듭 달로 마음을 가다듬는 한해의 끄트머리 달을 뜻한다. 월마다 각기 다른 이름과 의미가 있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어서 항상 쓰는 것 월보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만약 일상에서 순우리말로 몇 월 인지를 얘기하고 싶다면, 지금 월에 맞는 순우리말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월뿐만 아니라, 자연과 관련된 순우리말도 찾아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 바와 관련된 순우리말에도 많은 단어가 있다. 대표적으로 가랑비(조금씩 내리는 비로 이슬비보다는 굵으나 가늘게 내리는 비), 가루 비(가루처럼 포슬포슬 내리는 비), 풀 비(마침 비가 필요할 때, 농사짓기에 적합하게 내리는 비), 땀 비(추수가 끝나 땀을 해 먹으면서 쉴 수 있다는 뜻), 모다 짓 비(땀땀을 치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 보슬비(바람 없이 조용히 내리는 비), 비 꽃(한 방울 비가 시작될 때 몇 방울 떨어지는 비), 살비(살처럼 가볍고 길게 금을 그으며 내리는 비), 여우비(맑은 날에 잠깐 뿌리는 비), 잔비(가늘고 길게 내리는 비)등이 있다. 예를 들어 소나기가 오듯이 비가 세게 내린다 면 모다 짓 비가 내린다고 말할 수 있고, 해가 떠 있는데 비가 온다면 여우비가 온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다양한 상황들을 순우리말로 말한다면 비가

오는 상황에 맞게 알맞은 단어를 순우리말로 말할 수 있다.

비 다음으로 바람을 표현하는 순우리말 종류도 많이 있다. 뉘새바람(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 허늬바람(여름이나 가을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마파람(여름이나 가을에 남쪽에서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색바람(초가을에 잔잔하고 선선하게 부는 바람), 소슬바람(가을에 쓸쓸한 느낌으로, 으스스하게 불어오는 바람), 산돌바람(가볍고 시원하게 부는 바람), 솔솔바람(부드럽고 가볍게 부는 바람), 손돌바람(음력 시월 스무 날에 부는 손을 호호 불 정도로 차갑고 센 바람), 왕바람(아주 세차게 부는 바람), 칼바람(칼로 살을 베듯이 세차고 날카롭게 부는 바람), 풍 무니 바람(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등이 있다. 앞으로 바람을 표현할 때 순우리말로 바람 이름을 부른다면 한층 더 의미가 담긴 것 같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쓸 수 있는 순우리말은 어떤 게 있을까? 몇 가지를 활용해 보자면 사람옴더는 생김새나 행동이 사람을 느낄 정도로 귀엽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사용한다면 '길에서 만난 그 고양이는 정말 사람옴더'라고 쓸 수 있다. 달보드레는 달달하고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먹은 아이스크림은 정말 달보드레 했어'라고 쓸 수 있다. 짹짹나는 처음 들

었을 때 고양이와 연관된 단어 같지만, 자신의 힘을 다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오늘 낸 과제는 진짜 짹짹강남 해서 낸다고 힘들었어'라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자갈자갈은 여럿이 모여 나직한 목소리로 지껄이는 소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카페에서 자갈자갈 재밌는 이야기를 했다'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허우룩은 마음이 매우 서운하고 허전한 모양을 뜻하는데 '요즘 같은 가을에 마음이 괜히 허우룩해진다'라고 쓰면 좋을 것 같다. 꽃잎다는 한창 좋아진 게 나타나 보이기 를 뜻하는데 '시험이 끝나고 너 얼굴이 꽃잎다?'라고 활용할 수 있다.

순우리말을 찾아본다면 좋은 순우리말들이 정말 많이 있다. 뜻이 좋은 순우리말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렵지 않게 순우리말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입에 어여 버린 줄여서 쓰고 있는 용어들과 외래어를 주로 사용하는 우리에게 일부로 순우리말을 써보는 연습을 해본다면 어떨까? 처음에는 의식하더라도 자주 사용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순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한글날은 제 572돌을 맞이한다. 한글날이던 빨간 날인 공휴일과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제 일 먼저 떠오르지만, 한글의 뒤에 가려진 순우리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찾아보면서 몰랐던 단어와 뜻을 알게 된다면 순우리말로 우리에게 어색한 존재는 아닐 것이다. 이번 기회에 몰랐던 순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장희진 수습기자
jhn2087@gmail.com



엄광산
맑은 소리

대학에 들어가고 처음으로 맞는 추석 이자 두 번째로 맞는 명절이다. 흔히들 명절에는 친척들 잔소리에 많이들 고생 한다고 하는데 나 또한 그랬다. 대학에 들어왔더니 “어느 대학 다니니?”부터 시작해서 “군대는 다녀와야지”, “졸업하고 어떻게 할 거니?”... 기속사에 그냥 납아 있을까 했지만 그래도 이런 잔소리들을 듣더라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사실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추석은 그저 친척들의 질문 세례 아니면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만 했고 작년에는 고3이라서 크게 어떤 일이 있었든 것도 아니다. 분명히 오랜만에 맞이한 추석인데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 익숙한 감정에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총대라는 또 다른 새로운 역할을 맡아오면서 새로운 것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다. 익숙한 것에서 낯선 감정을 느끼고 새로운 것에서 익숙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추석이 아닌가 싶다. 연휴 기간 동안 본가인 거제도에 왔다가 다시 부산 용호동을 다녀왔다. 외갓집에 다녀왔는데 평소애 자주 뵈지 못한 분들이기도 했고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했다. 어릴 때는 참고고 못 따라잡을 것 같던 어른들의 키가 어느 순간 내 어깨 즈음에 와 있었고 한없이 커 보였던 친척 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좁게 느껴졌다. 내가 큰 것인지 아니면 집이 좁은 것인지 알 수 없을

그래도 추석이 좋다

고철영 (일본어학과·1)

정도의 이질감이 느껴졌었다. 어렸을 때는 마냥 쉬었다 가는 친척 집에서 내가 할 일 없나 찾아보고 어른들이 하시는 일을 거들고 있는 내 모습이 담연한 일이지만 왠지 모를 이질감 또한 같이 느껴졌다. 12살 된 사촌 여동생이 같이 오락을 하자고 하도 매달려서 같이 오락도 해 주었고 산책도 다녀왔다. 그전까지는 늘 내가 사촌들 혹은 친누나한테 놀아달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쉽게 거절하지도 못했다. 그렇게 용호동에서 거제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바로 기속사로 돌아가지 않고 굳이 거제도애 갔다 가야겠다고 생각한 유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 생각의 결론은 내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다. 평소애 기속사에 있을 때는 가족들 생각이 잘 나지도 않았고 그냥 할 일 하고 놀거나 일지리를 알아보거나 에어 멈췄고 항상 지루하거나 바쁜 거나의 극과 극인 일상이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 그저 가만히 누워있어도 기속사에서 느껴지던 공허함과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져서 새삼스레 다시 한 번 놀랐다. 추석은 가족들과 보내는 날이다. 가족, 친척의 한 식구가 같이 명절을 보내면서 근황을 물어보거나 같이 놀러 가거나 할 수 있는 날 들인데 요거서 요즘은 나 혼자 혹은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느꼈던 안정감을 느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기속사가 언제나 집처럼 느껴졌지만 집에서 느껴지던 안락함과 안정감은 없었고 집에서 오는 다른 자유로움이 더 있을 뿐 안락함은 찾기 힘들었다. 오랜만에 본가에 가고 외갓집애 가면서 어른들을 거들어서 일하고 쉬었다 오는 것을 생각하며 이번 추석 연휴를 시작했는데 그것들과 함께 가족들이 나에게 주는 큰 것을 알았고 이번 추석 때 내가 얻은 가장 큰 것임을 알았다. 추석은 이미 지나갔고 나는 기속사로 돌아왔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을 느꼈고 그것은 오로지 가족한테서만 느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가족들이랑 계속 살아왔고 가족들이 없을 때 느껴지는 공허함 같은 것을 잘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을 통해서 그 공허함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고 또한 가족이 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추석 특선 영화, 맛있는 음식 친척들의 용돈 등의 즐거운 것들이 있었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던 것은 가족이었던 것 같다. 명절은 결국 돌아온다. 다음 명절에는 용돈, 휴식의 힐링 보다는 나 자신에게 정말로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걸 찾아 보는 것은 어떨까?

죽비소리

한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배지혜 (광고PR·3)

한글이 올해로써 572번째 생일을 맞이한다.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은 한글날을 기념하며 어김없이 한글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낸다. 물론, 우리는 무분별한 은어나 유행어 혹은 외래어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통해 현대사회 속 사용되는 한글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은어나 유행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집단은 10대에서 20대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무분별한 언어사용에 대해 우려하지만, 이것은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요즘은 중년들 사이에서도 쓰이는 은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아이 엄마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얼집(아린이집)’ 혹은 ‘삼지(시아버지)’이다. 더욱이 노년층에서도 일제의 잔재로 인해 여전히 일본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젊은 층의 문제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퍼져있는 한글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우리는 잘못된 한글사용의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대왕님이 저승에서 울고 있겠다’라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진짜 울고 계실까? 나는 오히려 흐트러할까로 생각한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백성’이었다. 그는 우리만의 글자인 한글이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길 간절히 원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문

맹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찌면 은어와 유행어의 사용도 그만큼 우리말이 널리 사용된 결과의 산물이 아닐까 또한 언어란 본디 창조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한글을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을 창조해 내고 집단으로 누리고 있다. 앞서 은어나 유행어만 짚고 넘어갔지만, 우리의 귀를 불편하게 만드는 비속어나 모호하게 이해되는 외래어의 남발 또한 경계해야 한다. 필자가 비록 4개국밖에 다녀오지 않지만, 우리나라만큼 비속어를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쓰는 나라가 없다. 길을 지나다 보면 귀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비속어의 갖은 사용이 기분을 언짢게 한다. 굳이 누군가와 언쟁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닌 보통 일상 속에서 비속어는 거의 습관처럼 사용된다. 누군가는 친근함의 표시로 또한 누군가는 자신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마치 팔레트의 물감을 고르듯 사용한다. 물론 비속어만큼 감정을 잘 표현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다. 특히 방송보다 제약이 적은 영화 예선 실감 나는 감정연기와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비속어가 심심치 않게 사용된다. 물론 비속어가 감정을 전달하는데 있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문

는 사람들도 볼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1세기가 아무리 국제화 시대라고 하지만 자국어어를 가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 우리가 굳이 외국어를 불필요하게 빈번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와 터득해감이 되어버린 외래어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확하고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을 외국어로 대신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례는 직장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가령 ‘보서서 컨펌(confirm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런지 말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마인드 컨트롤’ 혹은 ‘테이크 아웃’ 등은 얼마든지 우리말로 대체 가능하다. 비록 사람들 의식 속에 이것들이 굳어져 있어서 바뀌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말이 아닌 은어, 유행어, 비속어, 외국어가 무조건 잘못되고 고쳐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이를 나름대로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런데도 이것들의 남발로 인해 우리의 모국어가 한글이 아닌 은어가 되고 비속어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종대왕이 남기고 간 한글에 대해 감사해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 글자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달의 명언

“100% 노력해서 안되면 101% 노력하라.” —이영표

신은 너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너의 성공에는 매우 관심이 있다. —故신재철

항상 기뻐해라. 그래야 기뻐할 인물이 종종 따라온다. —이건희(삼성전자 회장)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힘든가? 오늘 격으면 내일은 뛰어야 할 것이다. —커루로스 푸웁 (前축구선수)

사 설

최근 들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가 공공장소나 사적인 공간을 막론하고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제는 여성들이 공공장소를 드나들 때 마다 얼굴을 가리고 다닐 만큼 몰카 범죄는 한계에 달했다. 국민들은 몰카에 대해 단순범죄가 아닌 극도의 분노를 통해 사회의 심각한 범죄로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몰라 두려운 몰카 공포증, 일명 몰카 포비아는 줄지 않고 있다. 몰카범죄의 발생율과 그 수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몰카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그 사태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 몰카는 관음증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들여다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정신병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의 몰카는 이러한 증상뿐만이 아니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포털 사이트에 올려 돈벌이 도구로도 사용하여 더욱 심각하다. 몰카의 가해자 중에는 법조계, 경찰 출신, 대기업 간부, 학생 등 다양한

우리 주변의 누가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할지 모르는 형국이 됐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직업과 신분을 막론하고 언제 촬영 당할지 모르는 생각에 주변을 의심하면서 다닐 판국이 됐다. 특히 해수욕장과 지하철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은 몰카와의 전쟁에 나서야 할 판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 몰카 범죄에 여성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해마다 기승을 부리는 몰카족이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의 만큼 그에 따른 몰카 범죄 양상도 다양해지고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몰카 장비가 소형 첩단화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면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당국은 몰카범죄가 많은 장소 등에 여자 보안관을 투입해 몰카 단속에 나서고 있다. 몰카범죄에 대한 수사·기소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진행했던 판결들을 되돌아보면 되려 부추길 우려가 있을 정도로

느슨했다. 최근 비슷한 판이는 몰카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해가 갈 수 없을 정도로 상이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식당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식사 중인 여성을 몰래 찍은 남성에겐 유죄가 선고된 반면 치마를 입은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횡적인 불법촬영 범죄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판결은 다르게 나왔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성적 수치성에 따라서’라고 밝혔다. 유죄가 선고된 경우 여성의 허벅지가 부각되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반면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비교적 노출이 심하지 않은 옷을 입은 여성의 전신을 멀리서 촬영하여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죄로 끝났어도 경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것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건, 피해를 봤던 당사자 개인이 주관적

으로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어떻게 법원이 느껴서 이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노출이 심한 정도를 떠나서 자신의 동의 없이 누군가가 자신을 찍었다면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들 것이다.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몰래 촬영했다는 것 자체를 두고 범죄를 판단해야 한다. 갈수록 몰카범죄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죄 판결의 폭이 더 넓어져야 비윤리적인 몰카 촬영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 처벌 범위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더 이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 사이 디지털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은 훨씬 커졌다. 몰카는 과거부터 TV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지린 잡아 ‘장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난을 담은 영상을 촬영해 올리는 사례도 많다. 이 때문에 몰카에 대한 사람들의 죄

의식이 결여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법범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몰카’와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야만 그것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지시할 수가 있다. 이 범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피해여성들을 보고 간혹 몇몇의 사람들은 이를 남녀 간 성 대결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들의 불만 표출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미온적인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의 표출로 봐야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몰래카메라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떨고 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남성 또한 마찬가지다. 변형된 형태의 범죄 도구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등 이제는 개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따라서 이 범죄를 신속히 추적·단죄하고, 촬영·유포자는 물론 접촉·소비자에게도 책임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난을 담은 영상을 촬영해 올리는 사례도 많다. 이 때문에 몰카에 대한 사람들의 죄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목회칼럼



유 의 신 교목실장

최근 SNS가 진화하면서 關懷(관종: 관심종자)이라는 신조어가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위키백과에는 ‘남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심해서 병폐 수준인 상태’라고 하였다. 사실 우리는 상태의 경중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약간의 관종 증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장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자존감에 상처도 입고하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내면에 상처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

관심종자(關心種子)

면서 다른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십상이다. 미운 7살이라는 말은 성장하면서 가장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심해지는 시기라는 것이다. 말쑥을 일으켜서라도 관심을 받고자하는 성장과정의 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 잘 듣는 아이로 위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숙제나 청소, 심부름도 열심히 해본다. 그것도 안 되면 다른 것으로라도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다 해 본다. 그런데 가장 그리고 학교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시야를 밖으로 돌리게 된다. 친구들과 집단으로 부러라도 인정받으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친구들과 그 집단에서 의리를 지키며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나 집단이면 어디든지 가듯 하며 가담하게 된다. 비록 나쁜 친구나 나쁜 집단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인정받기만 한다면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애인이라도 생기면 자신을 인정해 주는 유일한 타인이 되기 때문에 미치도록 사랑하게 된다. 만약 이 사랑에도 실패하면 정말 미칠 지경이 될 것이 뻔하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불안정한 인정으로라도 잠시나마 만족을 가지며

행복감에 젖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다.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월로크리교회와 담임목사인 릭 워렌목사(Rick Warren)는 그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33p)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들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항상 걱정한다. 불행하게도 군중을 따라가는 사람은 군중 속을 헤매며 길을 잃게 된다. 나는 모든 성공으로 이끄는 모든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 통제받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5 우리가 무슨 일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들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 없는 날 수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음으로 이런 나의 모습을 이미 너무

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에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처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모님을 통하여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사실을 알려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도 없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구히 버림받는 죄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요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구주(救主 Savior)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비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만 해도 자긍심과 자존감이 생기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웠다고 이기고 견디어 날 수 있는 담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 인터뷰1-〈입시관리처 봉사 장학생〉박정훈 학생

동서대, 자부심을 갖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철저한 홍보 전략, 열린 소통으로 동서대 인기 ‘쑥쑥’



▶입시홍보 장학생 박정훈 학생



▶입시홍보 활동 중

동서대학교는 지난해 수시모집에 1만 6206명이 지원하여 부·울·경 사립대학 중 최고 경쟁률인 8.82대 1을 기록하였다. 동서대학교 신문사는 입시 철을 맞아 다가올 2019년 새로운 입학생을 맞이하기 위해 동문서주하는 입시홍보 장학생을 만났다.

Q.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앞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방송영상전공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정훈입니다. 2014년도에 입학해 입시홍보 장학생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친구들과 다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좋았고, 대학생이 되면서 고등학생들을 마주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군 제대 후 복학을 하고 입시홍보 장학생 모집공고에 올라오자마자 주저 없이 지원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동서대학교 입시홍보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 홍보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입시관리처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입시관리처는 9월부터 시작하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편입학모집에 관한 업무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서류 확인, 면접고사, 실기 고사를 준비해 최종 학생들을 선발하고 매해 2월 최종명단을 넘기고 나면 입시는 끝이 납니다. 입시가 끝났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입시관리처는 항상 1년 앞서 고등학생들을 위한 홍보 계획을 세웁니다. 입시 기간이 아닐 때는 대표적으로 3가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첫째, 고등학생들이 동서대학교로 방문하여 학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고등학교 체험학습’을 진행합니다. 매해 1학기부터 여름방학 직전까지 많은 학교가 동서대학교를 방문해 자신이 가고 싶은 과의 교수님을 만나 뵙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습득

하고 돌아갔습니다.

둘째, 여름방학 기간에는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입시 설명회를 열고 동서대학교만의 매력을 어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가고 싶은 과에 진학할 수 있는지 입시전략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부산지역 학교만이 아닌 경상남·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까지도 학교홍보를 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전국의 많은 대학이 모이는 ‘대학 입시 박람회’에도 참가해 학교 경쟁력을 확인시키고, 동서대학교와의 비전을 설명하는 홍보도 진행합니다. 따라서 입시관리처는 주된 업무가 학교 홍보와 입시 업무에 맞춰져 있고, 동서대학교 신입생이 될 학생들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가장 열정적인 부서입니다.

Q. 입시홍보 활동을 하며 가장 힘들었을 때와 보람 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A. 가장 힘들었을 때는 간혹 학교에 대한 편견을 깨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산을 벗어나 지역으로 입시홍보를 나가게 되면 동서대학교를 모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지만, 학생들끼리 동서대학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하는 말들을 직접 들었을 때 그 속상한 기분을 이겨내는 것은 동서대학교 재학생이자 입시홍보 장학생으로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장 보람 있었을 때는 부산에 어느 고등학교 홍보를 갔다 온 후에 우리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동서 입시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입시상담 중인 고등학교에서 앞자리에 앉아 관심 있게 얘기를 들어주던 학생이 다시 상담하러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상담도 오래 했고 꼭 합격해서 학교에서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입시홍보 장학생을 하면서 가장 뿌듯하고 보람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Q. 입시관리처 학생으로 얻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기 중 수업시간 이외에 최저시급을 보장받으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전공 말고도 다른 전공의 학생들을 만나고 진로를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본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떨리고 부끄러워서 발표를 꺼렸는데, 이제는 발표 상황의 긴장감들을 조금씩 즐기는 학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외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방법들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제일 뿌듯한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Q. 올해 입시홍보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 9월 10일부터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집이 마감되면 서류접수, 면접·실기 고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수시모집 합격생들을 뽑고 나면 정시모집 편입학 모집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입시홍보 장학생들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학생들이 면접·실기 고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전화·방문 상담도 지속적으로 응대하게 되고 동서대학교 입학에 희망하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동서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동서대학교는 역사는 짧지만 많은 학생이 지원하고 있고 해가 갈수록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도 있었지만 입시관리처 선생님들 역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열심히 애써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모든 동서대학교 학생들이 충분한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셔도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학교가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가희 수습기자
pgh0419@gmail.com

■ 인터뷰2-〈다큐멘터리 숨비소리 연출〉방송영상전공 이진배 학생

지상과 안착! 방송영상 전공 재학생 연출

다큐멘터리 ‘숨비소리’ 해녀들의 삶을 보아



▶ ‘숨비소리’의 오프닝 장면



▶ ‘숨비소리’를 촬영하는 모습

지난달 21일 케이비에스1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열린 채널’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 ‘숨비소리’는 부산 서구에 위치한 해녀들의 이야기로 동서대학교 방송영상전공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제작됐다. 흔히 해녀라고 하면 제주도에 있는 해녀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부산에도 해녀가 있다. 바로 부산 서구 해녀이다. ‘숨비소리’는 부산 서구에 위치한 해녀들의 이야기이다. 다른 지역 해녀들은 문화콘텐츠로 인정받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60년 전통의 부산 서구 해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밤을 지새우며 작업한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 ‘숨비소리’ 연출을 맡은 이진배 학생을 만나봤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방송영상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진배입니다.

Q. 다큐 ‘숨비소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가 제작한 ‘숨비소리’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수업 중 아이에코스2라는 수업을 통해 제작한 부산 서구에 위치한 해녀들의 이야기입니다.

Q. ‘숨비소리’라는 단어가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으로 선정된 이유와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A. 숨비소리의 뜻은 작품에서도 나오지만 해녀가 물질을 하고 물속에서 수면으로 나올 때 나는 숨소리가 숨비소리입니다. 저희는 이 숨소리가 해녀들의 삶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폭숨을 걸고 물질을 하며 내쉬는 숨소리에서 해녀들의 한과 삶을 느끼게 되어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Q. 부산 해녀를 주제로 다큐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A. 다른 지역 해녀들은 문화콘텐츠로 인정받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60년 전통의 부산 서구 해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명만이 남아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3시간 이상의 물질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분들은 서구 해녀의 마지막 세대며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이에 서구해녀라는 숨은 지역 문화콘텐츠를 통해 서구 해녀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구를 찾고 해녀촌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제작한 작품입니다.

Q. 다큐 ‘숨비소리’를 연출하면서 초점을 뒀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A. 5분가량의 짧은 영상이다 보니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해녀들의 삶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물질을 하기 전과 후 그리고 물질을 하는 모습, 무엇보다 해녀분의 내레이션들을 통해 60년이라는 해녀들의 긴 삶을 5분 동안 최대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Q. 이번 다큐를 찍으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아무래도 다른 다큐멘터리보다 러닝타임을 제작시간도 짧다 보니 시간적인 제약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제작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해녀라는 직업 특성상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촬영 일정을 미리 잡아두고 한다면 일정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Q. 다큐를 찍으면서 많은 도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고마웠던 사람들?

A. 짧은 영상이지만 하나 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촬영협조를 흔쾌히 허락해주시고 도와주신 서구 해녀촌의 해녀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리고 어려운 촬영을 도와준 다이버분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 같이 힘

내서 작품을 제작한 팀원들에게도 고맙고 무엇보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다양한 조언과 피드백, 촬영 등 여러 방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저희 전공 이자혜 교수님, 박덕춘 교수님, 오종서 교수님, 박미선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Q. 본인의 꿈이나 목표가 있었을까요?

A. 제 전공을 살려서 영상 콘텐츠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제작 혹은 연출처럼 어느 한 곳에 중점을 두지 않고 촬영이나 카메라, 편집 모든 직무에 능숙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미디어학부 4학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A.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래와 관련된 어떤 조언보다는 제가 지나왔고 느꼈던 학교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전공은 팀별로 하는 작업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생각과 주장, 개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부딪히는 문제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 전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원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 더 새롭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방송을 시청한 윤원임 씨는 “잊혀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역작스러운 삶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손희주씨는 “매립으로 물길 절한 공간조차도 줄어 들어간다고 하니 자연을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남겨 주어야 할 일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작품 잘 보았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작품에는 방송영상전공 4학년 이진배(연출)씨 외 손유정(작가), 전유림(촬영), 김현지(촬영), 박은지(편집), 김해린(편집) 씨가 함께 제작했다.

숨비소리 다큐멘터리를 통해 시청자들이 사라져 가는 해녀와 부산 서구 해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

임지성 수습기자
limjisung0128@gmail.com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다윗



▶다윗의 개신 - 프랑스의 화가 푸생의 작품

사울이 시기한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다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은 자’란 뜻으로 유다 지파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룖의 증손이며(룻 4: 18-22), 이새의 여덟 아들 중 막내였다(삼상 16: 4, 10). 다윗은 목자이자 군인이며 또한 왕이자 탁월한 시인이었다. 그는 시적 감각과 음악성이 뛰어났으며, 악기 연주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73편의 시를 지었다. 또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다윗 언약)을 통해 영원한 메시아의 모험이 되기도 했다. 히브리어 성경(구약성경)에서 매우 탁월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 언급하고 있다. 사울의 뒤를 이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2대 왕위에 오른 그의 생애와 주요 전투에 대해 알아보자.

다윗은 목동이었던 청소년 시절, 이스라엘이 적국인 블레셋 나라와 대치하고 있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을 조종하던 블레셋 군대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자신의 무뎠게 돌로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 쓰러뜨려 죽였고 결국 다윗의 공헌으로 이

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신임하게 되었고 다윗의 음악 연주 실력을 인정하여 자주 그의 연주를 들었다. 그 후 다윗은 군인으로서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백성이 “사울은 전쟁에서 천 명을, 다윗은 만 명을 죽였는데!”라며 다윗의 전쟁에서의 업적을 더 칭송하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였으며 죽이고 여러 번 시도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됐지만, 그 지지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기원전 1077년 30세의 나이에 유다지파의 왕위에 먼저 올랐고 기원전 1070년에는 통일된 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다. 광명 시기에 다윗은 민중들의 존경을 받아서 아둘람에 사회에서 소외된 민중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때부터 계산하여 총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여호와와 율법을 충실하

게 지키면서 종교적으로 나라를 단합시켰으며, 그의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 나라는 큰 변역을 누렸다. 하지만 성경에는 다윗의 죄와 실수들도 언급하고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언자 나단을 통해 그의 죄를 밝히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으며 하나님은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도록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로 인해 다윗의 집안에 재난이 닥칠 것이며 하나님이 막아주지는 않을 것을 선언했다.

다윗은 자신의 나머지 생애 동안은 계속 하나님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였으며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 토지를 마련하고 건축 설계를 했다. 또한 많은 자금과 건축 재료들을 모아 아들 솔로몬에게로 넘겨줬다. 기원전 1037년 아들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왕권을 이어받았고 성전은 솔로몬 통치 중에 건축됐다. 성경 기록에는 다윗 왕가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제 그가 겪었던 주요투인 시글라 전투에 대해 알아보자.

시글라 전투-당시 다윗은 사울의 탄압을 피해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로 잠피 피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에 자신의 부대를 제외하고 배척당하자 6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자신의 근거지인 자 블레셋의 한 성을 시글라로 갔다. 그리고 평야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고 잔치를 벌이며 흥청거리던 야말렉족들을 공격해 대승을 거뒀다. 야말렉족들은 거의 전멸당했고 다윗은 야말렉족에게 빼앗긴 두 아내와 전리품 등 잃어버린 것 하나 없이 모두 되찾았다. 그리고 브소르 개울에 머물게 했던 사람들도 맞이하였고 전리품들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눴다.

▷사진출처-뉴오피디아
자료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라이프성경사전, 위키피디아

박가희 수습기자
pgh0419@gmail.com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2018 SBA 신공공서비스 정책제안 공모전
- 공모분야 : 브랜드/네이밍, 사진/영상/UCC
- 공모기간 : 2018.11.20
- 공모주제 : 국내외 신직업형 공공서비스 사례 분석 및 서울시 현장적용계획



- 동반성장 영상 콘텐츠 공모전
- 공모분야 : 사진/영상/UCC, 공모전
- 공모기간 : ~2018.10.22
- 공모주제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의미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모든 내용



- 태권도 사진 공모전
- 공모분야 : 사진 공모전
- 공모기간 : ~2018년 10월 26일(금)
- 공모주제 : 태권도와 관련된 모든사진 (태권도원, 도장, 대회 등)



- 팩트체크 공모전
- 공모분야 : 디자인/플래시, 브랜드/네이밍, 사진/영상/UCC, 학술/논문
- 공모기간 : ~2018.10.31
- 공모주제 : 팩트체크 부문, 콘텐츠 부문



- 할리데이비스 코리아
- 공모분야 : 브랜드/네이밍, 사진/영상/UCC
- 공모주제 : 할리데이비스와 관련한 모든 것!, 슬로건·네이밍분야 : 할리데이비스를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슬로건 또는 2019년형 뉴모텔에 어울리는 이름(예칭)



- 가스펠스타C 시즌8
- 공모분야 : 예체능/오디션
- 접수기간 : ~2018.10.14
- 공모주제 : 세상에 희망을 노래하자!



- 건강한食서포터즈
- 공모분야 : 서포터즈
- 공모주제 : 농림축산식품부
- 공모기간 : ~2018.11.30



- 2018 LOTTE GRS 글로벌 원정대 8기 모집
- 공모분야 : 해외탐방 서포터즈
- 공모주제 : LOTTE GRS
- 모집기간 : ~2018.10.15



- 2018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분야 : 광고/아이디어, 학술/논문
- 공모주제 : 한국인터넷진흥원
- 공모기간 : ~2018.11.18



- #까웨챗졌니 공모전
- 공모분야 : UCC 공모전
- 접수기간 : 2018.11.4일(일) 자정 마감
- 공모주제 : '까웨챗졌니?'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다양한 영상 및 사진



- 서울특별시와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놀이공모전 '놀이를 찾아서!'
- 공모분야 : 광고/아이디어, 디자인/플래시, 브랜드/네이밍, 사진/영상/UCC, 문학/시나리오, 만화/캐릭터, 공모전
- 공모기간 : 2018.09.03~2018.11.04



- 2018 환경창업대전
- 공모분야 : 광고/아이디어, 마케팅 등
- 공모기간 : ~2018.10.19
- 모집분야 : ① 환경창업 아이디어 공모 ② 환경 창업동아리 모집 ③ 환경창업스타기업 선발 ④ 1인 환경(예비)창업자 선발

‘외국어랑 오타자 찾고 상품 받자!’



154호 동서대 신문은 ‘제572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호 ‘엔행사’는 한글날 특집 ‘외국어와 오타자 찾기’로 대체합니다.

몇 면에 어떤 외국어와 오타자가 있는지 찾아 학번, 이름, 전화번호와 함께 적어 채플 대강당 옆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단, 기자 이메일, 6면 죽비, 엄광산, 목회칼럼, 만평, 4컷 만화, 공모전·대외활동, 축제·공연 제외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서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거나 010-3331-8399로 연락주세요
※ 10월 30일까지 퍼즐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에
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는 11월 1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_____
· 학 년 : _____
· 이 름 : _____
· 연 락 처 : _____